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소식

공적 의료보험에 대해 알자

일본에는 여러분이 병에 걸리거나 다쳤을 때,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공적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류자격 갱신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꼭 납부하도록 합시다.

이번 호에서는 「공적 의료보험」의 종류, 출산 및 의료비가 고액이 되는 경우 등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 보험료의 경감 및 면제에 대해 일부를 소개합니다.

공적 의료보험의 종류

공적 의료보험에는 세 종류가 있으며, 이 중 한 종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각각 가입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① 사회보험

- 일을 시작해서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사회보험에 가입합니다.
회사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은 ②의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회사가 가입자 대신에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수속을 합니다.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의 일본에 살고 있는 가족도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회사에 확인합니다.
- 보험료는 급여에서 매달 자동적으로 차감됩니다.

② 국민 건강보험

- 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74 세 이하의 사람은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 구청의 보험연금과에 재류카드와 여권, 은행 캐쉬카드를 가지고 가서 가입 수속을 합니다.
- 보험료는 납입 통지서가 도착하면 정해진 기한까지 가입자가 직접 납부합니다. 계좌이체로 납부하거나 납입 통지서로 금융기관 및 구청 등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③ 후기 고령자 의료제도

- 75 세 이상의 고령자가 가입합니다.
- 가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구청에서 신청합니다.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율

- ①과 ②는 연령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이 높으면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0 세부터 6 세까지	20%
7 세부터 69 세까지	30%
70 세부터 74 세까지	20%

- ③은 일반적으로는 10% 또는 20%로, 소득이 높은 사람은 30%입니다.

보험증의 사용 방법

- 다치거나 질병으로 클리닉 및 병원에 갔을 때, 접수처에서 보험증을 제시합니다. 가입자가 납부하는 의료비가 줄어들고 남은 금액은 보험에서 나갑니다. 전국의 클리닉 및 병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보험에 가입해도 보험증을 병원에 가져가지 않으면, 모든 의료비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이어집니다. →

6 개 언어의 홍보지

한국어 외에 일본어/ にほんご , 영어 / English, 중국어 / 中文, 베트남어 / Tiếng Việt , 네팔어 / नेपाली 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에서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국민 건강보험에 관련된 주의점

1. 보험증의 유효기한에 관해
유효기한은 매년 9 월 30 일까지입니다. 9 월 말까지 새로운 보험증이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전에 쓰던 보험증은 본인이 책임지고 처분하거나 구청 창구 에서 반납하여 주십시오.
2.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 외에 「연체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체금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속 붙어납니다. 납부가 어려운 사람은 서둘러 구청에서 상담해 주십시오.
3. 귀국할 때, 시외로 이사할 때
보험증은 구청 창구에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정산수속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4.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회사에서 새로운 보험증을 받으면, 국민 건강보험의 자격상실 신고를 14 일 이내에 구청 창구에서 합니다.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 건강보험의 보험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5. 회사의 사회보험을 탈퇴할 때
국민 건강보험에 새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14 일 이내에 구청에 가서 수속합니다.

공적 의료보험에 관한 여러 가지 제도

※ 신청할 때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 : 경감, 면제 제도

특별한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을 때는 구청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 경감제도 :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실직한 사람도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가 경감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 면제제도 : 경감된 보험료도 납부하기 어려운 사람이나 재해, 실직, 수입의 급감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났을 때 : 출산 육아 일시금

- 출산을 위한 비용으로 아기 한 명당 원천 42 만엔 (2023 년 4 월 이후의 출산은 50 만엔) 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으로부터 병원에 출산육아 일시금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이용하는 사람은 병원에 신청합니다. 그 외,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신청합니다.

국민 건강보험이라면 출생신고와 함께 구청의 보험 연금과 창구에서 신청합니다.

- 국민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국인은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구청의 보험연금과 창구에 상담합니다.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회사에 확인해 주십시오.
- 또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출산을 위해 휴직했을 경우, 출산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클리닉 및 병원에 갈 때 : 어린이 의료비 조성제도

- 어린이 의료비 조성제도를 신청하면 0 세에서 6 세까지는 의료비가 무료입니다. 초등학교 1 학년부터 중학교 3 학년까지는 초진 때 500 엔을 자부담으로 낸 후 의료비는 무료가 됩니다.

다치거나 병으로 일을 쉴 때 : 부상질병 수당금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고, 회사를 쉬는 기간에 회사가 급여를 지불하지 못할 때 수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수당금은 회사를 쉰 날이 3 일동안 계속되고, 4 일째 이후에도 쉰 날에 대해 지급받습니다. 최장으로 1 년 6 개월입니다.

의료비가 고액이 되었을 때 : 고액 요양비 제도

- 의료기관 및 약국 창구에서 지불한 의료비가 1 개월 동안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초과한 금액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은 연령 및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시 : 장례비

- 공적 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 시, 5 만엔의 장례비가 지급됩니다.

상담하고 싶을 때

국민 건강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을 때, 각 구청 보험 연금과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물어보십시오.

일본어로의 상담이 어려운 사람은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의 「통역 서포트 전화」(022-224-1919) 를 이용해 주시시기 바랍니다.

통역을 도와드립니다.

안내

- ① 일상생활에서 곤란한 일이 있을 때는 『센다이생활 편리수첩』을 활용해 주세요.
- ② 외국인 지원모임 OASIS에서는 상담대응과 동행 보란티어를 하고 있습니다.

『센다이생활 편리수첩』은 센다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모은 책자입니다.

공익재단법인 센다이 관광국제협회가 다언어로 작성·편집하여 센다이시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대응언어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크라이나어, 러시아어입니다.

아래의 URL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https://int.sentia-sendai.jp/foreigner/>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각 일본어 병기)는 다문화 공생센터에서 책자로 배부하고 있습니다.

수속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거나 정보가 필요할 때, 꼭 활용해 주십시오.

외국인 지원모임 OASIS는 센다이 다문화 공생센터를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카운터에서의 상담대응 외에 행정 및 교육기관, 면허센터 등에 함께 동행하여 의사소통을 서포트하는 「결에서 도와주는 보란티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응언어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입니다.

일본어로의 의사소통에 불안을 느끼거나 센다이에에서의 생활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약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직접 전화로 문의해 주십시오.

<https://int.sentia-sendai.jp/k/exchange/counter.html>



상담원 코너 「공적 의료보험에 관한 생각」

이 코너에서는 매 호의 테마에 맞춰서 상담원의 경험 및 생각을 소개합니다.

일본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친한 친구나 이웃이 주변에 없을 때, 다치거나 몸이 아프게 되면 특히 힘든데요, 이럴 때 병원비에 대한 걱정까지 겹치면 더 힘들어집니다.

사전에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비 부담에 대해 알아두면 갑자기 몸상태가 안 좋아져도 조금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일본의 공적 의료보험에는 일본 국민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외국인도 가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관광 목적 이외의 체류자 중에서 회사의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유학생이나 중장기 체류자라면 국민 건강보험 가입대상 외국인에 해당됩니다. 일본에 입국한 날로부터 14 일 이내에 신청하고 입국한 달부터의 금액을 계산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신청이 늦어지면 신청달과는

상관없이 일본에 입국한 달까지 포함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입국 후, 1년째인 사람은 전년도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납부하면 됩니다. 2년째부터는 소득 등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참고로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부양하는 사람(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가족 수에 따라 보험료가 비싸집니다.

유비무환! 일본에서 안심하고 생활하기 위해 미리 보험에 대해 알아보고 잘 활용합시다!

(상담원 Y)

매 호, 각 언어판에는 각각의 상담원이 「상담원 코너」를 기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서 일본어 번역본을 공개하고 있으니, 꼭 봐주세요.

센다이 다문화공생센터

せんだいたぶんかきょうせい

仙台多文化共生センター



운영시간 매일 오전 9 시~오후 5 시 (연말연시, 월 1~2 회 정도의 휴관일 제외)
주소 〒980-0856 센다이시 아오바구 아오바야마 무반치 센다이 국제센터
회의동 1 층
TEL (022) 265-2471
FAX (022) 265-2472
Email tabunka@sentia-sendai.jp
URL <https://int.sentia-sendai.jp/k/exchange/>



■ 외국어 상담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곤란한 일이나 문제에 대해 외국어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통역 서포트 전화」 (022) 224-1919 로 전화해 주세요.

대응언어: 영어,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 말레이어, 크메르어, 미얀마어, 몽골어, 싱할라어, 힌디어, 벵갈어, 우크라이나어

■ 그 밖의 서비스

연수실, 아동실, 교류 게시판, 도서 대출도 가능합니다.

시민활동이나 교류를 위한 정보 및 공간도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전문 상담회

변호사 및 행정서사 등의 전문가에 의한 「전문 상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센다에서 생활하다가 곤란한 일이 있으면 꼭 이용해 주십시오.

비밀은 엄수합니다. 한 사람 당 30 분입니다.

개최 시간은 매회 오후 1 시~오후 4 시입니다.

상담회 일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int.sentia-sendai.jp/k/exchange/consultation.html>



행정서사



변호사



노동국



출입국 재류관리국



세무사

